

취 임 사

친애하는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2021년 정기 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임된 NC 부산(주) 대표이사 강경진입니다.

지금까지 협회의 기초를 다지고 선구자 역할을 다해주신 초대 이민석 회장님과 전임 김영석 회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제가 협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회원사 대표님들의 노고에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산업폐기물 매립업계는 지난 몇 년간 내외외환을 겪으면서 입지의 등락에 따라 업계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임 협회장님들의 치적에 누가 되지 않고 대표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협회 태동 이래 업계의 가장 큰 과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로서의 발전 모델 마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십여 년간 정부의 매립 정책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 시키고자하는 노력과 정부가 내놓는 매립정책의 수용 가능 여부를 놓고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정책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수용되기도 하고 정부로 부터 일부 제도에 대한 양보를 얻어 내는 반면 업계의 희생을 감내 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 여러분!

지난 10년을 반추해보고 앞으로의 10년을 가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업계의 진로를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기관과 활발히 소통하고 다양한 창구를 개척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업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업계 숙원 사업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정부, 국회,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소통해 이상적인 업계 발전 모델을 창출해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기반시설 존립 목적인 공익사업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에게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이 단순히 폐기물을 매립 처분하는 시설이 아닌 국가 중요 지원시설로서 산업 발전의 배후 기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여 혐오·기피시설 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국민 결의로 한 발짝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업황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은 산업폐기물 매립업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지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앞으로도 요동치는 급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 모두가 상생하고 안정화된 지형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신증에 신증을 거듭하며 현명한 해결 방안을 회원들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국내 산업폐기물 매립업에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기라는 것은 대표님들과 임직원 모두가 익히 아시는 상황에서 어려운 증책을 맡겨주신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임원 및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증지를 모으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과 가정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2021. 6. 4

한국 산업 폐 기 물 매 립 협 회

제 5 대 회 장  배 상